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한윤경

전화 063-259-4308 / 팩스 0502-193-8088

보도자료

2021. 5. 24.(월)

제 목 전주 모텔 폭행 사망 사건 수사 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제11조 제2항 제3호)

-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폭력조직원 등이 금전문제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장시간 때려 외상성 쇼크사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21. 4. 28. 주범 AOO을 강도치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죄로 구속 기소하고, '21. 5. 21. 폭력조직원인 공범 BOO을 강도치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 기소, 별건 수감 중인 공범 COO을 강도치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DOO을 증거인멸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
-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관련자 (재)조사, 면밀한 CCTV 분석,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법의학 자문 및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CCTV 영상 분석의뢰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폭행에 알루미늄 배트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 하는 등 범행동기, 공모관계 등을 철저히 규명하였고, 심도 있는 법리검토를 거쳐 특수폭행치사 및 특수폭행치사방조 등으로 송치된 사건을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강도치사 등으로 기소하였음
- 전주지방검찰청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 지원 등 피해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 피고인

- AOO(남, 27세, 무직, 4. 28. 구속 기소)
- BOO(남, 26세, 무직, 폭력조직원, 5. 21. 구속 기소)
- COO(남, 27세, 무직, 5. 21. 불구속 기소)
- DOO(여, 25세, 종업원, 5. 21. 불구속 기소)

○ 공소사실 요지

- A, B, C는 '21. 4. 1. 13:30경 A로부터 3,500만 원을 투자받은 피해자(남, 26세)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A는 B, C에게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감시하고 위협하여 투자금을 돌려받을 것을 지시하고, B, C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려 2,500만 원을 돌려받고, 이후 A는 18:00경 모텔에 합류하여 C에게 알루미늄 배트를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C가 가져온 알루미늄 배트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마구 때려 60만 원을 돌려받고, 23:40경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계속 때려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강도치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 B는 D에게 '21. 4. 1. 16:35경 범행 상황을 전해들은 D가 B에게 보낸 '피해자를 그만 때려'라는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D는 이를 삭제하여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II

수사 경과

- '21. 4. 9. 피고인 A 구속 송치(특수폭행치사 등)
- '21. 4. 28. 피고인 A 구속 기소[강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 구속영장 발부
- '21. 5. 4. 피고인 B, C 송치(특수폭행치사방조 등)
- '21. 5. 21. 피고인 B 구속 기소[강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C 불구속 기소 [강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D 불구속 기소(증거인멸)

III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광범위한 관련자 (재)조사, 면밀한 CCTV 분석,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법의학 자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CCTV 영상 분석의뢰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폭행에 알루미늄 배트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범행동기, 공모관계 등을 철저히 규명하였고, 심도 있는 법리검토를 거쳐 강도치사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음
- ※ 강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폭행 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재판절차진술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알루미늄 배트를 트렁크에서 꺼내 객실로 반입하는 장면】

